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 설문조사 결과 요약본

작성자: 조민서

<1> 조직위 참여단체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2023년 9월 23일~9월 27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120개 단체 대상
- 단체당 평균 참여 인원은 88명.
- 주관식 설문으로 수집된 응답들은 항목에 맞게 분류하였음.
- 동의 정도를 묻는 설문 문항의 최고 점수는 5점, 최저 점수는 1점임.

2.조직위 운영 및 활동: 923 기후정의행진 준비 과정

-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평가(4.1점 내외)가 주를 이루었음.
- 단 사전행동의 경우 절대적으로는 긍정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기후정의행진 선포 기자회견] 과 [선포 기자회견]과 [지역/부문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음(3.9점 이하).
-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점들을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하자면 1)공지 전달의 빈도와 플랫폼, 2)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보다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 3)농/축산 관련 의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임. 4)참여단체의 외연에 대한 문제 - 특정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견 -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3. 행진 전반 및 세부: 923 기후정의행진 당일

- 사전부스와 오픈마이크, 본집회, 행진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당일 행사의 실제 진행 과정(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평등과 안전의 보장, 사전안내 및 홍보, 선언문 등)은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4.1점)

- 다만 행사 과정에서의 안내와 스태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낮았음(3.8점). 실제로 주관식 설문에 대해 제출된 대다수의 응답이 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ㄱ)사전행사의 경우 확보된 공간의 크기와 규모, ㄴ)본 집회의 경우 착석 위치 안내, ㄷ)행진의 경우 두 갈래로 행진이 나뉘어 진행되는 과정과 음향 문제로 인한 안내 부족 및 마무리 과정의 미흡, 행진 과정에서 경찰의 통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특히 광화문 대오의 경우) 등이 제기되었음.
- 여기에 더하여 사전부스 공간의 규모, 본집회의 운영 방식, 행진 과정에서의 대응과 음향 문제, 통솔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4.기후정의행진의 경험: 923 기후정의행진 이후

- 조직위원회가 목표한 바가 활동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3.5점 내외로 절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님.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가가 4점을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위의 노력과 행진 전반의 원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형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음.
- 기후정의행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과반에 해당하는 58.3%의 응답자가 “다양한 사회운동의 폭넓은 연대”를, 40%의 응답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꼽았고, “대규모 인원의 참가”를 꼽은 응답자도 29.2%에 달했음. 이를 앞선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와 연관지어 본다면,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기후정의행진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성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시민들을 넘어서 기후정의행진의 파급력이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여러 단체들의 참여가 견인한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과제라고 보여짐.

5. 기타 소감

- 먼저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에 이어 올해 진행된 923 기후정의행진에 일정한 규모의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참여단체의 수가 늘어난 데 비해 그만큼의 집회 참여자 수 증가는 없었다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많은 집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슬로건과 프레임, 곧 기후정의행진의 방향을 나타내는 내용과 홍보 형식(“추진위원”이라는 워딩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비서울, 비수도권 단체의 경우 지역에서의 참가 경험 혹은 조직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이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조직위 참여연대 설문조사 분석 원문: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단체 설문조사 결과

〈2〉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개요

- 행진 당일인 9월 23일 -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집된 응답 중 행진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935명(전체 응답자의 96.4%)을 대상으로 함 .
- 복수 응답을 고르는 일부 설문의 경우, 안내된 선택지 수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들이 일부 있었음.
- 해당 설문조사가 유포된 경로 (추진위원 대상 단체 문자, 각 단체별 설문조사 참여 독려)를 감안, 응답자들의 특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 응답자의 66.1%가 여성, 29.4%가 남성, 4.5%가 “기타(혹은 밝히고 싶지 않음)”으로 응답
- 평균연령은 41.7세,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이며 수도권 참가자 비율이 70.9%.
- 직업으로는 시민운동활동가(26.1%)와 프리랜서(21.7%)의 비율 높았음.
- 단체 소속이 있는 경우가 88%, 26%가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소속. 그 외 노동조합(10.1%), 협동조합(8.9%), 정당(8%), 청소년/대학생/청년단체(7.6%), 종교단체(7.1%), 동아리/소모임(6.8%) 순으로 분포.

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까지

- 단체의 회원으로 함께 참석한 경우는 65.8%. 개인으로 지인과 함께 참석한 경우도 26.3%, 소속 단체나 지인이 아니라 단독으로 참여한 비율은 7.9%.
- 참여하고 있는 단체/조직을 통해 행진을 접하게 된 경우가 많았음. 이와 더불어 (단체/조직 등에 의해 게시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홍보물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짐. 언론보도나 언론 광고의 비중은 낮았음. * 다만 해당 설문이 유포된 주된 경로 역시 참여 단체/조직, 온라인 홍보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여 동기로는 2022년 기후정의행진과 같은 경험에 대한 의지(28.1%),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촉구(25.6%)가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정부 투쟁(17.0%), 본인이 경험하는 기후부정의를 알리는 것(14.3%),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변혁 순으로 나타났음.

4. 기후정의행진 내용에 대한 평가

- 대체로 슬로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음(평균 4.2점). 주체로서 ‘우리’가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의지를 돋운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
- 슬로건을 구성하는 “위기”, “우리”,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쟁 대상과 요구가 명확치 않다는(특히 해당 기후정의행진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 더더욱 이 불명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음.
-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동의 수준이 높음(4.7점 이상)
- 14대 세부 요구안에 대한 우선 순위 평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46.2%),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8%)”,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37.6%)” 등이 많은 지지를 받았음.

5. 기후정의행진 이후

- 행진 중 인상적이었던 행사: 대규모 행진(71.4%), 그리고 (행진과 연설 중 진행되었던) 다양한 퍼포먼스 및 시위(44.5%)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음. 오픈마이크(16%)이미 준비된 연설(13.9%)이나 콘텐츠를 경험하는 것(사전 부스 22.5%)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한 경험을 더 인상적이었다고 꼽는 경향이 나타남.
- 행진에서 인상적이었던 점: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에너지에 대한 경험(61.6%),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37.8%)는 높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 이야기”를 꼽은 비율은 10.9%에 불과. 주관식 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구체화하자면, 이 지점은 기후정의행진이 1)누구에게 2)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지 3)그 주체로서의 ‘우리’는 누구이며 (어떠한) 적대를 상정하고 있는지 4) 궁극적으로는 923자체의 정체성(‘운동’과 ‘축제’ 사이)은 무엇인지를 둘러싼 모호성과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하자면 다수의 응답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여 다른 동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 소회를 남겼으나(향후 재참여 의사도 96.3%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행진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넘어 이 행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단순히 슬로건과 요구안 등 행진의 내용 뿐만 아니라 행진의 형식(경찰과의 관계 설정, 참여자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참여의 방식)과도 연관되는 쟁점.

- 행진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세력 형성의 기여(45.8%)”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 (41.9%) >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36.4%) > “기후위기와 관련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제 전환의
필요성 부각”(33.9%) 순으로 30% 이상을 기록.
- 기후정의운동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실천: 정치권력(60.9%)과 경제권력(40.5%)
등 특정한 운동의 대상을 명시하는 선택지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사회운동 단체들 간
결합과 연대 역시 45.3%의 응답자들이 선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구성(47.1%), 기후정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정치세력화와 기후위기 대응 주도(45.2%),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변혁” (34.5%) 등이 꼽혔음.

6. 기타 의견

-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 문제, 경찰과의 관계, 음향, 행진 와중 액션의 밀도, 행사 비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설문 관련 등이 지적되었음.

* 행진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 원문: [W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docx](#)